일본조혈모세포은행

JMDP(Japan Marrow Donor Program)

일본골수이식추진재단(JMDP)은 1991년 12월 18일 창립 이래 일본 내의 유일한 골수은행으로서 일본적십자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다. JMDP는 중앙사무소(도쿄에 위치)와 7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와 기증자 상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적십자사에서는 기증자의 모집, HLA(조직적합성항원형) 검사 및 데이터입력, 기증자들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총 300,000명의 기증희망자를 목표로 현재까지 280,000명 이상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였고 곧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1993년 첫 번째 기증자를 통한 이식을 시작으로 2007년 5월 말 현재까지 8,356건의 이식을 시행하였다.

일본조혈모세포은행 홈페이지

http://www.jmdp.or.jp

1997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의 교류를 포함하여, 대만(BTCSCC), 미국(NMDP)과의 긴밀한 국제교류를 시행하여 국제검색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중국(CMDP)과의 협약을 추진중에 있다.

협약 시행국 이외에도 1998년 BMDW(Bone Marrow Donors Worldwide)에 가입하여 전세계 골수기증자들의 검색을 시행하고 있다.

JMDP 기증자를 이용하여 총 155명〈미국 - 10명, 한국(KMDP) - 125명, 기타국가 - 20명〉의 국외환자들이 이식을 받았고, 국외기증자 147명〈미국 - 110명, 대만 - 25명, 한국(KMDP) - 12명〉을 이용하여 일본환자들이 이식받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JMDP를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자등록은 18세 이상부터 54세까지 가능하여 좀 더 많은 기증자들의 기증등록이 가능하며, 55세까지 실제 조혈모세포기증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조혈모세포기증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환자들을 위한 조혈모세포기증교류 뿐만 아니라 양국 상호간의 국민감정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